야호! 멋진인생

홍대 앞 라이브클럽 회고

<한여름호>

머나먼 우주로부터의 메세지



〈1996년 홍대 라이브클럽 드럭〉

태양계, 지구, 아시아 동쪽의 작은 나라, 1996년 대한민국, 가을.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펑크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그 해, 크라잉넛의 '말달리자'가 수록된 컴필레이션 앨범《Our Nation》이 발매되었고, 신문에서《Our Nation》과 크라잉넛, 그리고 클럽 '드럭'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드럭'이라는 라이브 클럽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심심한 김에 라이브 클럽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평일 학교를 마친 후 혼자 홍대로 향했다. 'DRUG'이라 쓰인 간판을 발견한 후 그 간판 위로 내가 좋아하던 The Clash의 3집《London Calling》자켓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걸 발견했다. 건물 지하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가 보니 이미 공연은 한창이었다. 내 또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지하실은 가득 차 있었고, 사운드는 출력의 한계치를 넘어선 듯한 굉음의 향연이었다. 하울링이 울려 퍼지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기타 앰프 소리, 찢어진 듯한 보컬, 때려부수는 듯한 드럼 사운드... 굉음과 난폭한 비트는 지하실 전체를 휘감았고, 사람들 역시 그 소리에 맞춰 날뛰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뛰어놀던 누군가에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 몰라요. 그냥 놀아요~" 하고 대답했다. 밀착된 인파 속에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오직 '위쪽'뿐이었다. 나는 콩콩 스프링처럼 뛰었고, 서로 밀쳐지는 대로 부딪히며, 힘을 주지 않아도 공간 속에 부유하듯 서로에게 기대어 떠 있는 듯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만원 버스를 떠올렸지만 그 적막하고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생전 처음 겪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일반적인 예술회관이나 공연장의 번호 매겨진 좌석이 아닌 콩나물시루 같은 좁은 공간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몸을 맞대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하나의 빵 반죽처럼 덩어리로 섞여가는 느낌은 그전까지 내가 알던 공연과는 전혀 달랐다. 질서 정연한 좌석, 거대한 무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쇼를 감상하던 경험과는 확연히 다른 공연이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시절 그 공간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움' 그 자체였다. 소리도, 사람도, 그 공간도 모두가 살아 있었다. 냄새나는 작은 지하실, 바닥이 꺼진 곳도 있는 쓰레기통 같은 공간에서 경험한, 시끄럽고 요란하며 생기 넘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 날것' 같은 공간이었다. 오직 백열전구의 빛만으로도 눈부셨던, 흥건한 땀이 불쾌하지 않았던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난다. 밴드 크라잉넛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이주현(갤럭시 익스프레스) -

<목차>

스트레인지 프룻 20주년 기념 에세이
WORLD WILD JET
야호! 문예부
요즘 뭐 들어?
야호! 멋진 인생 속 멋진인생
왓 이즈 락
메아리 코너

스트레인지 프룻 20주년 기념 에세이

와우산로 이팝나무에 걸린 스트레인지 프룻

- 이다영(스트레인지 프룻 수요 스탭) -

허옇게 북실한 이팝꽃은 벌써 피었다가 지고, 그새 여름이니 제가 스태프가 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스태프가 되기 전부터 제겐 각별한 의미를 지녔던 프룻은, 이젠 각별하다 못해 애달픈 곳이 되어갑니다. "스트레인지 프룻이 '그' Strange Fruit이에요?" 하고 언젠가 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Strange Fruit이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블루스 곡이죠. strange fruit hanging from the poplar trees. 그래서 가끔 이팝꽃이 필 적에, 그 끝에 걸린 검게 굳은 피를 상상하곤 합니다. 뒤돌면 보이는 간판은 또 시퍼래서, 말 그대로 요상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음악의 애환이 깊게 베인 곳이랄까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스트레인지 프룻이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는 때로 전설 같기도, 동화 같기도 하고, 스태프에게서 스태프에게로 전해오는 구전 설화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프룻은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전 공연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다른 공연장은 다 사라지거나 달라졌는데 프룻만은 참 그대로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프룻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고 우리만 늙어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진짜 엄청나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글쎄, 그게 좀 우울한 일일 수도 있으나, 모두 여기 여전히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매주 수요일 프룻에 앉아 있다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



〈스트레인지 프룻 20주년 포스터〉


〈스트레인지 프룻, 박지홍 사장〉

하는 일이 잦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며 그간 작업한 걸 듣다 보면, 친구가 어떤 태도로 평생을 음악에 바쳐왔는지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음악은, 그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말도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 말도 없이 위로를 줍니다. 서로 그렇게 매일 더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태도가 곧 삶이 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때로 길을 잃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살지만, 공간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가요. 인디 30주년인 올해, 자신의 음악을 지켜온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며, 모두를 아무 말 없이 응원하고 지켜주신 스트레인지 프룻 박지홍 사장님께 이 글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6/24(화) DJ Soulscape, The Tatles, Soultrain, Airbear
6/27(금) Kim Oki Love Love, Qu(JP)
6/28(토) 하헌진, The Bowls, 스모킹리
6/29(일) TEHO, 만동
7/4(금) The Reseters, Monky Gang War, Daddy O Radio
7/5(토) OhChill, The Do Do Do's(JP), Fat Hamster & KANG New
7/6(일) Endless Cave, 오마르와 동방전력, 불고기디스코
7/11(금) 강승원, 김일두
7/12(토) Tramhaus(NL) Galaxy Express, Roxy
7/13(일) 다정 포, 우지원
7/18(금) 이우성, CHS, 타이거디스코, 하세가와요헤이
7/19(토) 이민휘, 광프로그램, 백현진
7/20(일) 차승우와 사촌들
7/25(금) 서울전자음악단, 야생마와 자유부인
7/26(토) 3호선 버터플라이, 조동희, 미미시스터즈 with 이지향
7/27(일) 가리온, 배현이와 옥빛마을
7/31(목) Rumkicks, Oysters, 한니
8/2(토) Zzzaam, 구름열차
8/7(목) 오방신과, WEDANCE
8/9(토) Black Syndrome, Soultrain, Ego Function Error
8/10(일) GuiLin기린, 김목인, 버둥
8/11(월) Kill the Thrill(FR), Sailor Honeymoon, 교정
8/14(목) Animal Divers, Blue Turtle Land
8/15(금) 키라라, 애리
8/16(토) Oya Yusuke(JP), Anzu(JP), Cotoba
8/17(일) Kingston Rudieska, 이날치, Youngmond
8/19(화) Monseur Doumani(CY), 윤석철 트리오
8/20(수) Shallow Levée(TW), 멋진인생, Dabda
8/21(목) 최항석 & Boogie Monster, The Great Balls, Uncle Beat
8/22(금) 김목경밴드 , Richiman & Groove Nice
8/23(토) 키셀루 Kicell(JP), 김사월
8/24(일) Komagens,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8/27(수) 전자양
8/28(목) Ray?Oh...Needa!!(JP), Yowamushi club(JP), Low High Low, DJ Txako
8/29(금) Jasmine kelly(HK), Offing, Big Phony
8/30(토) Cadejo, Lowdown 30
8/31(일) Windy City, 추다혜차지스, 모임별

WORLD WILD JET

Tokyo Jet City

거거덩 협동조합의 조합원 예지입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일본의 로큰롤을 탐방해 봅시다.

LET'S GO

동명이인 너무 많아서 자기소개 끓여왔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야쿠자와 정치로 논문쓰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은 대충 인디밴드 같은거임. 1. '그 뭔씹' 자강두천들의 리그임. 2. 좋아서 하는 일이라 내 돈 들여서 해야함. 근데 저는 또 거지라서 공부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일본 정부 국비장학생으로 학비랑 매달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전 해산한



〈왼쪽에서부터 나카무라 타츠야(Drs.), 아사이 켄이치(Gt/Vo.), 테루이 토시유키 (Ba.)〉



〈스크린에 대고 모싱하는 사람들〉

일본 록의 대들보 블랭키 젯 시티(이하 '블랭키') 마지막 투어 'LAST DANCE' 라이브 뷰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5년전 해산 날짜에 맞춰 (7/8) 해산 투어 장소였던 요코하마에서 집단 상영을 했습니다. 당시 장소는 2만명 수용 가능한 요코하마 아리나. 이번 상영 장소는 2천명 수용이 가능한 ZEPP YOKOHAMA. 블랭키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쉘 건 엘리펀트의 형제밴드 격으로 1990년부터 2000년 해산 까지 일본 록 전성기의 주축임. 크게 개러지 밴드로 분류되긴 하지만 장르 구분이 의미가 없는 밴드, 즉 블랭키의 장르는 블랭키. 로큰롤 이라는 착지점만 있고 각자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밴드임. 재밌는건 당시 이 사람들의 리스너들 중 한 축이 폭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임.첫 곡 <Omae ga hoshii>부터 네 번째 곡 <파인애플 샌드/パイナップルサンド>까지 멘트도 없이 달리다가 잠깐 드러머 타츠야가 딱 한마디 함. "일본 전국에서 오신 폭주족 여러분~ 안녕하세용~" 네? 뭔 소리세요, 폭주족이라뇨? 영상 초반에 전국 각지의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를 보여주긴 했는데 미친; 그게 전부 관객들 오토바이였군; 하긴 안그러고서야 남의 번호판을 막 보여주나? 진짜 폭주족 = 펑쓰, 로큰롤러 이게 실화였던 시대구나. 당시 관객 2만명 당연히 꽉 채우셨고요, 그 와중에 폭주족 샤라웃을 한거임.... 미친 라이브 + 폭주족들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한참 보는데 1층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모싱함. 귀찮다고 늦게 예매해서 2층 배정받았는데 아쉬워서 돌아버림. 한참 보다 마지막 곡 <Baby Baby>땐 나도 그냥 일어나서 모싱함. 정신차려보니 2층도 작게 모쉬핏이 형성됨. #이거지예 #맛도리 블랭키는 진짜 레전드 아니고 전설임... 블랭키 'LAST DANCE'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니 무한으로 즐겨보십시오.

- 예지(거거덩 협동조합원) -

예지의 블랭키 추천 앨범 : 2집《BANG!》, 3집《C.B. JIM》

추천 트랙: 2집《BANG!》 3번 트랙 <SOON CRAZY>, 7번 트랙 <★★★★★★★(Seven stars)> 9번 트랙 <Bang!>, 3집《C.B. JIM》의 1번 트랙 <PUNKY BAD HIP>, 3번 트랙 <D.I.J의 총알 D.I.Jのピストル>, 11번 트랙 <3104정목의 댄스홀에 발걸음을 옮겨라! 3104chome no dancehall ni ashi wo mukero!>

냉면왕의 현장르포 <영국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오아시스'. 이 밴드가 나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시하다. 작년 11월 재결합 발표와 함께 투어 일정을 공개했을 때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첫 재결합 투어의 시작을, 바로 어제(7/6) 함께하고 왔다. 그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음. 우선 나는 앞줄을 사수하고 싶은 마음에 입장 시간인 5시보다 이른 새벽 3시부터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가장 앞에 있던 아저씨는 전날 12시부터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관계자가 와서 "프론트 스탠딩 구역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여기서 기다릴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당연히 프론트 스탠딩으로 가기로 하고 팔찌와 어떤 종이를 받은 뒤 다른 게이트 앞에서 대기했다. 처음엔 정말 추웠는데, 나중엔 더워서 울렁거리기까지 함...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고 입장을 했는데 결국 1열은 못 잡았다. ㅎㅎ 우선 '선입장 티켓'이라는 것이 있었고, 짐 검사 이슈+티켓 머신 이슈+그냥 발 빠르고 밀고 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감. 그래도 다행히 5열 정도에 엄청나게 가깝고 시야도 좋았다. 입장하고 1시간 뒤, 'CAST'라는 밴드가 오프닝 공연을 했는데 조명을 계속 관객한테 쏘는 거임. 진짜 눈뽕이 너무 심해서 무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무대에 집중도 안 됐다. 노래도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니었음. 무대가 끝나고 나서 "설마 오아시스 공연 때도 이렇지 않겠지..."라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음 공연 순서인 '리처드 애쉬크로프트'를 보고 나서는 걱정이 싹 없어졌다. 캬... 리처드 애쉬크로프트 공연은 정말 멋있었다. 일단 조명이 눈을 공격하지 않고, 노래도 너무 좋고, 행동거지나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락스타스러웠음. 버브가 오아시스 오프닝 밴드로 다니면서 키워줬었는데, 아마 리처드 애쉬크로프트에게도 이 공연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대망의 오아시스의 순서가 왔다... 오아시스의 공연 시간이 되자 스크린에는 "THIS IS NOT A DRILL"(*글쓴이 주: 군사용어로,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 실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관용구를 뜻한다)이라는 문장이 떴고, 관객들을 고조시킨 다음 입장곡의 드럼 소리가 총알처럼 울려 퍼졌다.인트로 영상에는 각종 뉴스 기사, 댓글 등이 콜라주로 나왔고, 곧이어 노엘과 리암이 손을 잡고 입장했다. 미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 ㅠㅠ 첫 번째 곡으로 <Hello>가 나오자 관객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리암 목소리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소리에 안 들렸고,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대고 옆에서는 뛰고, 진짜 대환장 파티. 새벽 3시부터 기다린 거고 뭐고, 계속 넘어지고 밀리고 낑기니까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Acquiesce>랑 <Morning Glory> 이후로는 조금 뒤로 가서 봤다. 입장할 때부터 리암과 노엘,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 정말로 신기했는데, <Acquiesce>에서는 노래까지 번갈아 같이 불러버리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생각보다 리암 목 상태도 너무 좋았다. <Do You Know What I Mean?>을 부를 때는 진심 멀티트랙(MTR) 틀어둔 줄 알았음. <Cigarettes & Alcohol>할 때는 관중들이랑 포즈나 자세도 취해보고, 별별 경험을 다 했다. 정말 미친 공연이었다. 영국 아저씨들 실내에서 담배 계속 피워대고, 대마 피우는 사람도 있고, 맥주인지 오줌인지 모를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운데 오아시스의 음악은 계속 연주되고, 그 중에는 주먹다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트로부터 스크린 연출, 사운드 등 정말 다 좋았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본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너무 신기하고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다.



〈영국의 오아시스 버스〉


〈영국 거리에서〉

- 냉면왕 -

야호! 문예부

심드렁 4컷 만화



- 수현(연희동 심두 사장) -

묵은 추억들을 꺼내보아요!

옛날 사진 공모전

조건 : 10년 이상 지난 직접 촬영한 사진

[이름, 장소/등장인물, 장비/필름, 짧은 설명]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yiyi8proxy@gmail.com ✔ 2025. 8. 15 마감

쪼다 일기 3화 - 쪼다 작가 -

쪼다는 철로위에 서있다. 양팔을 벌리고 고개를 젖혀 하늘을 보았다. 육중한 열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빠앙하고 돌진해 오기를 기다렸다. 하늘은 눈부셨다. 실눈을 살짝 뜨고 구름을 째려 보았다. 무언가 핑 돌았다. 산책하던 개 몇 마리가 쪼다를 빤히 쳐다보거나 왕왕 짖었다. 철로에 기차가 멈춘지 30년이나 되었다는것을 모르기도 했지만,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쪼다의 심정이었다.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연트럴 파크에서...

한강 - 안녕이라 말했대도

내가 생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민선의 고양이, 리오〉

방구석에서 누워서도 소비할 수 있는, 도파민을 풀자극하는 각종 컨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한정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생음악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다소 원시적인 취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를 가지고 고품질의 음악을 감상한다고 해도, 생음악을 물리적으로 감각하는 즐거움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 바로 앞에 감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만들고 연습해왔던 무언가를, 다른 멤버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는 일.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 혹은 약간의 어색함과 함께, 눈앞에 실재하는 관객들과, 그 관객들의 흥분과 설레임의 진동과 생생하게 함께 호흡하며 같은 음악에 빠져 시간을 향유하는 것은 다른 영역의 멋짐이다. 같은 음악이라도 그 현장의 공기, 습도, 각 멤버의 컨디션, 관객의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생음악 공연은 반복될 수는 있지만 결코 복사되지는 않는 것이다. 나는 생음악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앞으로 쏟아질 수많은 기술과 경이로움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생생하고 날것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벗을 수 없는 화려한 조명의 공연장에서, 비 오는 날의 질척이는 잔디밭에서, 때로는 쿰쿰한 보라색 조명이 있는 지하의 클럽 안에서, 내 앞의 생음악을 즐기며 물리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타인과 호흡하며 춤을 춘다.

- 민선(헤드헌터) -

순정의 응접실

여행 다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정의 응접실입니다. 언제나 손님을 모십니다. 이번에는 여행 다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일평생 한 번 이상이라도 항공여객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탑승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 정도, 그리고 매년 타는 사람은 5~10%정도 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의 계급성 혹은 제가 남기는 탄소발자국 등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너무 과하게(?) 가지는 않아야겠다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언젠가는 훌쩍 떠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가이드북을 사서 본 적도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이 주가 됐네요. 그리고 다들 유튜브도 많이들 보실테고요. 저는 가고자 하는 도시에 라이브 이벤트가 있는지 구글링을 해 봅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지의 언어로 검색을 해야 해요). 라이브 이벤트가 없더라도 바나 클럽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면 저장 해 둡니다.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라면 내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 귀찮게 설명하지 않아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몰 톡을 좋아하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시시콜콜한 대화가 피로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나도 잘 모르는 케이팝 이야기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무슨 시리즈물에 대한 이야기들 말예요. 저는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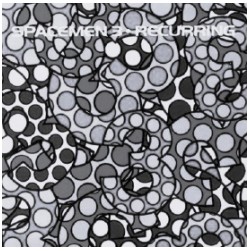
〈DJ수니, 채널1969에서〉

- 순정(응접실 주인) -

스카탈라이츠 - Dynamite

요즘 뭐 들어? <청소년 편>

요즘 10대들, 도대체 뭘 듣고 살까요? Osamson 부터 무키무키만만수 까지, 앨범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소개글로 이어폰 너머 그들의 진짜 취향을 알아봅시다.



Spacemen 3 - 《Recurring》

이 앨범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가 정말 편안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가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이 앨범을 들으며 밤거리를 걸으면 술을 못 마시는 10대라도 몽롱한 취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키델릭한 딜레이 사운드가 아주 좋다. 정말 좋다. 당신이 금주를 하고 있다면, 술을 마셔보고 싶은 10대라면, 컴프레서로 찍어 눌러 음압을 키우는 요즘 음악이 지겹다면 Spacemen 3 - 《Recurring》을 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트랙은 <Big City> 이다.

- 김대현 / 유리조각소년 (16) -

수요초대석
-오픈마이크-
참가신청

소규모 세팅의 생음악 및 전자음악
웅변, 대담, 각종 원맨쇼 환영

@invitation_wednesday

무키무키만만수 - 《2012》



무키무키만만수를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었지만, 얼마 전 '구장구장 화형식'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시 접하게 되었다.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고 마냥 웃긴 노래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 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었다. 내가 이 앨범을 좋아하는 이유는 앨범을 들었을 때 느끼는 불쾌함과 쾌감 사이의 미묘한 감정인 것 같다. 날 것이고 조잡하지만, 질리지 않는 것이 매력이다. 그리고 이 매력은 가사들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투쟁과 다이어트>라는 트랙에서는 사회적인 계급과 투쟁에 대한 가사가 담겨 있다. "살아가야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지금의 10대들과 현대인들의 투쟁과 굴레가 잘 나타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네.' 이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세상은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니까. 추천 트랙은 <투쟁과 다이어트>이다.

- 고유정 / 서스픽스(16) -



Osamason - 《Jump Out》

나는 이 앨범을 많은 사람이 들어 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는 한 번은 쭉 들어 봤으면 좋겠다. 래퍼 오사마손의 'Jump Out'은 2025년에 발매된 레이지 앨범이다. 방금 문장에서 '2025년에 발매된 앨범이다'를 제외한 글자에 거부감이 드는 당신이라면 이 앨범을 꼭 들어 보기를 바란다. 나는 같이 음악 하는 친구가 오사마손을 들어 보라고 권해서 그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오사마손의 음악이 싫었다. 현대미술처럼 아무나 다 할 것 같았다. 다른 유명한 래퍼들을 베낀 것뿐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은 다르다. 오사마손은 나를 완전히 설득시켰다.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혹시 가오 잡는 일진이 싫은가? 폭력, 혐오, 돈으로 가득 찬 요즘 힙합과 래퍼들이 싫은가? 내 생각이 바뀐 이유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당신도 듣고 설득당해라! 으하하! 추천 트랙은 <Made Sum Plans>, <Ref>, <The Whole World Is Free>이다.

- 부산사는 나경모(17) -

Elvis Costello & The Attractions - 《Almost Blue》



이 앨범은 앨비스 코스텔로 앤 디 어트랙션즈의 여섯 번째 앨범으로,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다. 커버를 처음 봤을 때는 재즈 느낌의 음악일 줄 알았다. 실제로 <Midnight Blue>라는 재즈 앨범의 커버를 오마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앨범을 들어 보니 대부분이 컨트리 곡이라 놀랐다. 알고 보니 이 앨범은 컨트리 곡들을 커버한 앨범이었다. 코스텔로는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컨트리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커버 앨범을 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Almost Blue>는 발매 당시 평단의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코스텔로의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앨범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앨범이 좋은 이유는 코스텔로의 보컬 퍼포먼스가 특히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여 줬던 뉴웨이브 스타일의 곡들에서는 느낄 수 없던 그의 새로운 보컬 스타일이 인상 깊었다. 내가 추천하는 트랙은 <Good Year for the Roses>이다. 개인적으로 이 곡이 앨범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다.

- 윤재원 / 서스픽스(19) -

머틀리 크루 - kickstart my heart

야호! 멋진 인생 속 멋진인생

2003년 전미 투어의 시작이였던 평택에서의 멋진인생

1954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누가 위문공연 오느냐?'였다. 그당시 최고의 배우 마를린 몬로가 대한민국에 상륙하여 위문공연을 했다. 1965년 베트남전쟁이 지속되는 당시 존 레논의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곡 <임예진>도 있었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발발, 전쟁과 음악이 함께 하던 도중 세계적인 밴드 '멋진인생'은 큰 결단을 한다. UN 평화국에 올라 전쟁을 하고있던 부시와 후세인에게 박상권의 강력한 일침 **"Is there anyone here?(여기도 사람있어요)"** 라고 외치며 전세계 누리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그 후 멋진인생은 전미투어의 신호탄으로 미국 평택시에서 첫 공연을 열게 되었고, 성황리에 브루노 마스(18세)와 아리아나 그란데(10세)와의 합동공연을 마쳤다.



〈2003년 당시 미국 평택 스트리트〉

왓 이즈 락 <유즈드보이 편>

왓이즈락: 교정, 멋진인생 등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기학: 밴드는 결국 사람들끼리 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밴드는 연애고 공연은 섹스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새끼 외설적이네' 생각했는데 살다보니가 그 지점이 맞게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연은 삶의 한 순간이죠. 누가 아무리 남겼다해도 100% 보여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무대에 있는 사 람들의 입장에서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연애에서 섹스도 그런 거죠. 그 순간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다고 하면 "와, 오빠 좋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오빠 병신 같았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공연도 똑같아요. "너 오늘 왜 이거 틀렸어?" 이럴 수도 있고 "너 오늘 이거 너무 좋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의 시간을 맞추는 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너무 힘들어져서 '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앨범을 내게 됐죠. 말 그대로 '시대유감'입니다. 그냥 처음에 썼을 때는 아마 제목은 안 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 유행에는 없구나'라는 걸 뭔가 크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한 십몇년 전부터 계 속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현 시대 유행이 아니라는 걸 뭔가 최근에 느끼게 되면서 '아 나는 시대랑 안 맞는구나' 싶었죠. 어떤 친구가 '야, 너가 옛날에 했던 게 지금 엄청 유행하는 건데 왜 지 금 안 해'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지금 재미없단 말이야.'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랑 안 맞으니 유감이다 싶었던 거죠.

왓이즈락의 이기학 인터뷰 전문은 QR 확인

<시대유감>에 대하여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야 돼요. 이것도 재미없어진다면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재미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나는 계속 어떤 시대에 안 맞던 간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테임 임팔라, 케빈 파커를 처음에 레드 제플린의 재림이라고 했는데 걔가 전자음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은 거죠. 결국엔 요즘 다시 옛날 라이브 하잖아요. 그런 식의 유감인 거죠. 걔는 유감을 못 받아들이니까. 옛날 걸 하게 된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 게 된 거고, 나는 뭐 좋아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좋아해주면 훨씬 좋고.

- 왓이즈락님과 이기학님 인터뷰에서 일부 발췌 -



〈유즈드보이 머리 길던 시절〉

메아리 코너

'Independent'.— 형용사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이라는 뜻이다. 즉, 주류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디'라고 부른다. 인디 3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인디 정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인디 정신인가? 인디는 원할 때 입고, 원할 때 벗는 그런 옷 같은 것이 아니다. 그저 '힙하다'는 이유로 잠깐의 유행처럼 스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디 정신은 오직 나의 힘으로, 나만의 음악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체계화된 음악 산업 논리 바깥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세워나가는 것, 거대한 자본으로 돌아가는 음악 시장에 맞서는 작고도 거대한 투쟁인 것이다.

인디씬은 누구보다도 음악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단지 언더그라운드라는 이유로,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폄하 당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 그들의 이름을 멋있다는 이유로 뺏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30년을 버텨낸 인디 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곰팡내 나는 지하 공연장에서 그들의 영혼까지 로큰롤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진심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고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로큰롤과 함께!!!

- 충북로큰롤수호자 -



90년대 홍대 앞 인디밴드의 시작을 알린 밴드 코코어 (cocore)의 이우성이 하와이안 음악을 가지고 10년만에 한국투어를 열었다. 공연장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 사인을 네버다이



빵빠레 축구단
- 단원모집 -
<<<매주 수요일 12시>>>
홈구장 : 난지천축구장
@bbangbarae_FC

딱따구리
맞춤형 인테리어
토탈서비스
@gojaeworks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DJ호도리의 신나는
디제이 레슨 DM주세요!
@dj_hod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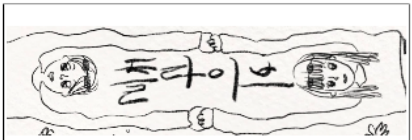
금요음악생활
음악생활 커뮤니티에 접속해 보세요
https://discord.gg/Sh3K2DAt

편집국: 안홍인(편집국장), 아인(편집부장), 순정(홍보부장), 예지(교열부장)

야호! 멋진인생

발행일: 2025년 7월 20일
구성, 편집: 야호! 멋진인생
제작, 발행: 야호! 멋진인생

투고·제안·제보·광고
yahomeotzine@gmail.com



유튜브에 틀다이브